

지속적인 품질혁신 통해 경쟁력 확보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호평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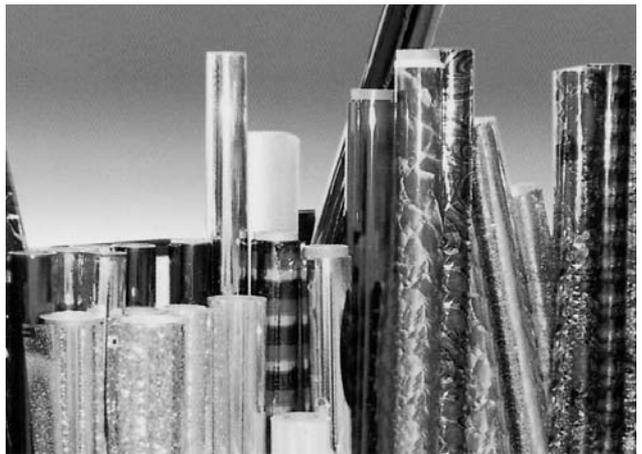


김 만 수
대하실업(주) 대표이사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 언초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던져지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자금 등 현실적 여건에서 살펴 볼 때 역시 중소기업들이 자체브랜드를 확보해 해외시장을 공략, 성공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올 하반기 이후에나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내 내수 시장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불안한 해외 시장의 여건 아래서도, 해외시장 개척과 내수시장 확보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하실업(주)(대표이사 김만수)을 찾았다.

대하실업(주)은 1986년 창립된 이래, 1991년 법인을 전환하고 2000년 7월 제2공장을 확장하면서 발전, 현재



▲ 대하실업(주) 취급제품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대하실업(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포부를 갖고 대하실업을 창립했다”는 김만수 대표이사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경영인으로 20여년간 대하실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장본인.

주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필름과 나일론 필름을 월 4백여 톤 이상 (주)코오롱으로부터 직접 매입, 제조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는 대하실업(주)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원가

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하실업(주)이 제조, 가공하고 있는 폴리에스터 필름 ASTROLL은 매입업체인 (주)코오롱이 섬유 부분에서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개발에 의해 탄생된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뛰어난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으로 식품포장용, 절연용, 산업자재용, 자기자재용등 뿐만 아니라 스탬핑 포일(stamping Fol)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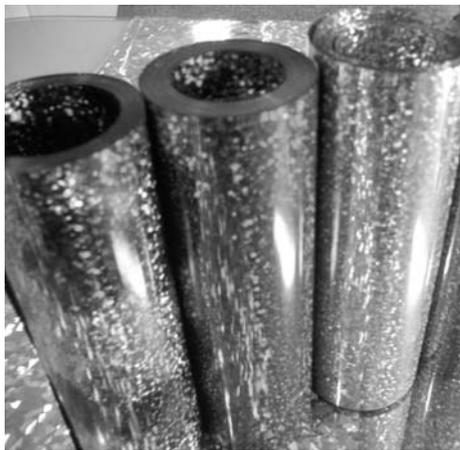
갖고 있다.

특히 높은 인장강도와 적절한 신장율, 넓은 온도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해 여타 제품에 비해 품질이 탁월하다.

현재 대하실업(주)은 폴리에스터 필름의 섬유용 제품 생산에 치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포장용 제품 생산을 위해 특수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우수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하실업 관계자는 “대하실업(주)의 폴리에스터 제품군

DAEHA



◀ 대하실업(주)은 폴리에스터 필름, 나일론 필름의 제조·가공을 통해 품질혁신을 추구한다

은 투명성과 접착성, 전기절연성과 내한, 내온성 등으로 인해 전 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필름 제품군 뿐만 아니라, 대하실업(주)은 나일론 필름인 AMIDROLL을 매입하고 가공해서 포장재 및 섬유재 등으로 공급하고 있다.

나일론 필름 제품 역시 뛰

어난 내구성과 기체차단성, 내약품성 등으로 인해 대하실업(주)이 선두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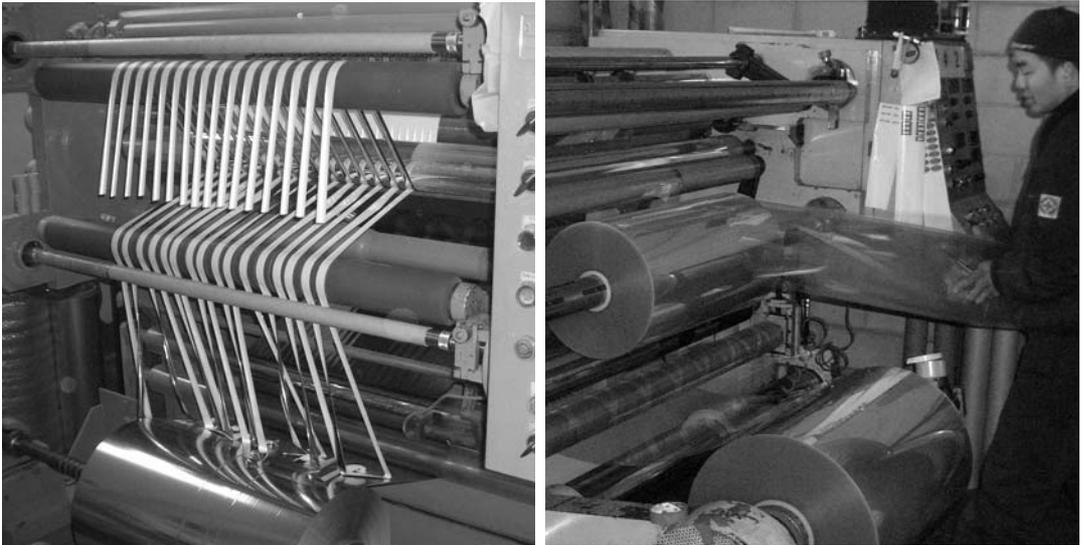
대하실업(주)은 1990년대 초반부터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바이어(buyer)를 확보,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 200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의 40~50%를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

며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서울사무실을 두고 해외영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이어(buyer)를 확보해 ‘Global company’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대하실업(주)은 2000년도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2004년에는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대하실업(주)의 발전



▲ 대하실업(주) 슬리터와 작업전경

은 김만수 대표이사의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경영방침의 결과라고, 임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과감한 최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은 김만수 대표이사는 2004년 모범중소기업인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생산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혁신과 이를 통한 신제품 개발 뿐만 아니라, 섬유분야의 기계

프로그램을 개발, 기계 부품 수출로도 이익을 실천하고 있는 미래가 밝은 기업.

대하실업(주)은 금년 1월,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 가입으로 업계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당경쟁을 지양해 업계가 고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대하실업(주)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쟁사와 차별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해 15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이라는 사

명(使命)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Global company’ 대하실업(주). 중소기업들의 수출활로 모색이 화두인 현재, 제품 경쟁력 강화로 포장업계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대하실업(주)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o]

박 초 혜 기자

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2 코오롱스타폴리스 1401호
전화 : 02-2675-2758
팩스 : 02-2679-6086